

제목: "마음이 열린 베레아"

말씀: 사도행전 17장 10-15절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다른 곳보다 특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곳과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 1) 그들은 \_\_\_\_\_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 날마다 들은 것을 \_\_\_\_\_하고 그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 3) 조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살았지만 \_\_\_\_\_이 없었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8월 29일 주일)	
십일조	
주일	
선교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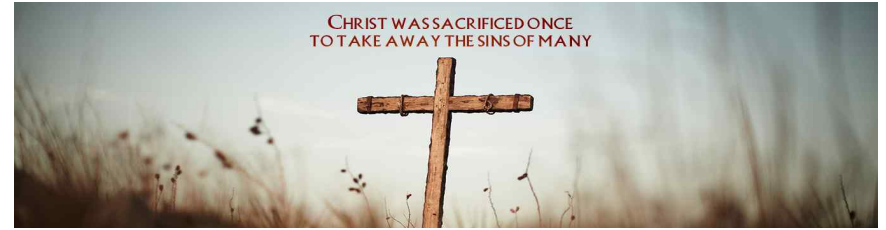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President
- \* 찬양 ..... 다같이  
Praise .....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 All Together
- 성경말씀 ..... 사도행전 17장 10-15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Acts 17: 10-15 신약 217 페이지 ..... President
- 말씀 ..... "마음이 열린 베레아" ..... 김성민 목사  
Message A People with open mind ..... Rev. Kim
- 성찬식 ..... 다같이  
Communion ..... All Together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 All Together
- \*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유명한 커피샷)

몇 년 전 모임을 마치고 무엇인가 마시기 위하여 커피숍을 갔다. 그런데 그곳은 커피(Coffee)와 갖가지 빵도 파는 전문 커피숍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가게는 커피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집이었다. 나는 무엇을 마실까 생각을 하다가 커피를 달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가게에서 제일 자랑하는 커피가 나왔다. 온갖 폼을 잡고 한 번 맛있게 마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커피를 조금 마셨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너무나 입에 썼다. 보통 나도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편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 되었다. 설탕을 쏟아 부었다. 그래도 맛이 나지를 않았다. 조금 더 넣었지만 여전히 쓴 맛이 가시지 않았다. 이제는 우유를 타 보았다. 그래도 그 쓴 맛이 없어지지 않았다. 조금 더 넣었다. 그랬더니 커피 맛은 사라지고 커피우유가 되어 버렸다. 그 한 잔을 마시면서 아까워서 마시기는 했으나 전혀 기쁨을 주지 못한 커피였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날에도 커피를 사서 마실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다른 커피를 사서 마실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3일 동안 마신 커피는 모두 내 입맛에 맞지를 않았다. 분위기는 좋았지만 맛은 좋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하루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너무나 맛있는 것이 아닌가?

그 때 깨달은 것이 있었다. 아무리 좋다고 하는 비싼 커피라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위기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을 입고,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사람과,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는 커피는 시중에서 가장 싸게 파는 인스턴트커피라 할지라도 맛이 있고 살과 뼈가 되는 것과 같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 주에 갔던 커피가게들도 잘못 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보고, 깨닫고, 앞드리고, 사랑으로 나누는 나의 골방, 나의 목장, 나의 교회, 나만이 알고 있는 고요한 시간이 잘 차려 놓은 부흥회보다 낫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써 아름답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맛보다는 여기저기 커피 집을 찾는 것과 같이 믿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사도행전 7장 33절)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떨기나무 앞 이지만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다.

좋은 커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커피를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만나자고 하신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랜 만에 함께 예배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리를 마련하신 이석순 장로님 가정에 감사합니다.

### 2. 기도의 삶

####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조영실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교회에서 다시 모일 때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 4. 9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9월호가 도착 했습니다. 한 권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 5. 친교

앞으로 당분간 예배 후 친교 준비는 교회에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탁은 가능하겠지만 비용은 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